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관계

조미경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ddiction, and Self-control in Nursing students

Meeky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자기 통제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3년 6월 10-18일까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하위학생이 상위 학생보다 이용 동기와 중독(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기 통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스마트폰의 고위험 사용자군이 오락/여가, 서비스, 기능성의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기 통제력(특히 즉각적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과 중독 하위요인 중 내성,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과 학년 특성이 중독의 88.2%를 설명하였고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중 오락/여가와 과시/유행이 중독의 12.9%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는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중독은 자기 통제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용을 유도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독에 이르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학과 학생, 스마트폰, 중독,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ddiction, and self-control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0-18, 2013.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nd addi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record. Smart phone high-risk users got high-score in use motivations especially entertainment/leisure, service, and functionality, and low-score in self-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smart phone addiction were record, tolerance, abstinence, difficulty of daily living, and aim for virtual world which accounted for 88.2%. Also factors affecting addiction were entertainment /leisure, flaunt/trend which accounted for 12.9%. In conclusion, smart phone use motivations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addiction, while addiction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self-control. Therefore more positive and desirable ways of smart phone use,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self-control should be studi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ddiction, self-control

* 본 논문은 2013년 대전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25 February 2014, Revised 28 March 2014

Accepted 20 May 2014

Corresponding Author: Meekyung Cho(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Email: mkcho@hit.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23,763,000여 명, 2013년 1월 말 기준은 33,298,000여 명이었다[1]. 국민 총 인구 5천만 명 중 약 67%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 확산, 무선인터넷, DMB, 스마트폰 등의 등장은 사람들의 이동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제약을 소멸시키고 기존의 공간제한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바꿀 수 있게 만들었으며 현재는 정치, 산업, 교육, 놀이, 노동환경 등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두 가지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키는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2]. 즉 스마트폰은 기존의 전통적인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기능보다 향상된 복합적 기능과 동시에 PC와 같은 운영체제(OS) 및 웹과 위치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3].

휴대폰의 가장 특징적인 매체적 속성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성과 휴대가능성이다.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폭이 넓어진다. 즉,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즉흥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기도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 휴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행위의 선택지를 넓혀준다. 타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이제 스마트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단말기로서 컴퓨팅 환경의 변화라는 상징성을 가지며 현대에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의 하나이다[5]. 특히 새로운 문화를 빨리 흡수하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용도로서의 도구라기보다 항상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이며 자기표현 매체의 도구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6].

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역기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컴퓨터가 통신매체로 자리 잡은 이후 인터넷, 채팅, 게임 등에 중독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오락적/쾌락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휴대전화의 매체적 특성이 휴대전화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친다[7]. 스마트폰 중독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충동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2] 또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8]으로 정의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결과로 수업 집중력 감소, 학업저하[9, 10], 강박증, 적대감, 공포증, 대인민감증, 우울증, 불안, 금단증상[11, 12, 13], 자기 통제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14, 15, 16, 17] 등의 연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언어파괴, 음란, 폭력, 게임중독 등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한 사회문제도 일으키고 있다[2].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이인희(2001)[18]는 사회적, 기능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양일영과 이수영(2011)[19]은 정보획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합성, 유행 및 과시, 상시적 정보활용, 즉시성, 습관성, 이용편리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Logue(199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에서 인용됨)[17]는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는 작은 결과보다 좀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 개념을 충동성이라고 하였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현실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의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통제를 못해 가상공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20]. 선행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부적 관계를 확인, 우려하여 왔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 미숙, 문제해결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21].

미디어 중독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독과 자존감, 충동성, 우울함, 고립감, 불안감, 가족관계, 친구와의 대화단절, 학업성적, 과다지출, 자기 통제력, 현실도피, 오락, 스트레스 해소 등 많은 관련 요인들의 상호작용[22]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최근에 중독과 정신건강, 대학생들, 개인적 관계 연구[23], 대학생들 스트레스와 중독, 통제력

관계가 연구[24] 등이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래에 대상자들의 건강문제와 회복,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시간 활용, 유익한 정보획득 등의 활동을 할 때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자기 통제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민경(2006)[25]은 성격보다 동기가 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자기 통제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은 향상시키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스마트폰 주요 사용 목적에 따른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4) 중독 수준에 따른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차이를 파악한다.
- 5)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자기 통제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6월 10-18일까지 D광역시 일 대학의 간호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각 교실에 직접 들어가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 및 대략의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전체 368부를 배부하였고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

한 응답을 한 질문지는 제외하여 342부(회수율 9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는 신영미(2011)[13]가 사용한 스마트폰 이용 동기 측정도구(양일영·이수영[19] 도구를 재구성함)를 활용하였다. 전체 26문항은 정보획득(3), 오락 및 여가(3), 서비스통합성(2), 즉시성(5), 기능성 및 이용편리성(6), 과시 및 유행(5), 관계유지(2)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스마트폰 이용 동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이었다. 자기 통제력 척도는 남현미(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척도와 김현숙[21]의 척도를 참고)가 재구성한 도구(1999)[26]를 활용하였다. 전체 20문항은 장기적 만족추구와 즉각적 만족 추구의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지, 욕구를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만족을 추구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 로 남현미[26] 연구의 신뢰도와 같았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27]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활용하였다. 표준화 점수를 통해 ①고위험 사용자군: 원 점수 총점 44점 이상, 또는 일상생활장애 15점 이상 & 금단 13점 이상 & 내성 13점 이상 일 때, ②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원 점수 총점 40점 이상~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 일 때, ③일반 사용자군: 위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독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 Cronbach's $\alpha=0.81$).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의 차이와 스마트폰 주요 사용 목적에 따른 중독 정도, 중독 수준에 따른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적으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이 128명(37.4%), 여학생 304명(88.9%), 성적 우수자가 116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 주목적은 문자(37.7%)와 통화(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 인식은 ‘어디서든 연락 가능, 정보공유, 친구와 친밀감 향상’에서, 부정적 인식은 ‘학업 문제, 사용료, 대화시간 감소’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대상자의 235명(68.7%)이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342(%)	
Grade	first	128(37.4)	third 67(19.6)
	second	107(31.3)	fourth 40(11.7)
Gender	female	304(88.9)	male 38(11.1)
	good	116(33.9)	poor 112(32.8)
Record	fair	114(33.3)	
	Main purpose of use	call	95(27.8)
letter		129(37.7)	
game		6(1.8)	
camera		8(2.3)	
internet		78(22.8)	
MP3		23(6.7)	
Positive aspect of use(plural response)	others	3(0.9)	
	intimacy with friends	150(43.9)	
	stress solution	44(12.9)	
	solution of loneliness	71(20.8)	
	contact wherever	268(78.4)	
	sharing information	219(64.0)	
Negative aspect of use (plural response)	others	5(1.5)	
	health problem	76(22.2)	
	study	166(48.5)	
	fee	171(50.0)	
	anxiety	88(25.7)	
	lack of conversation	127(37.1)	
Degree of addiction	others	9(2.6)	
	normal user group	235(68.7)	
	risk group	44(12.9)	
	high risk group	63(18.4)	

3.2 학년 별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의 차이

학년 별 스마트폰 이용 동기의 전체 점수에는 차이는 없었지만 정보획득의 하위요인에 3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01, p<.001). 자기 통제력에는 4학년이 즉각적 만족에 높은 점수를 보여 전체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01, p=.008). 스마트폰 중독의 일상생활장애 하위요인에서만 4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7, p=.037)<표 2>.

3.3 성별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의 차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6, p=.014). 특히 정보획득(t=2.46, p<.014), 오락/여가(t=3.85, p=.001), 서비스(t=3.28, p=.001), 즉시성(t=2.16, p=.032)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자기 통제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중독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4.28, p<.001). 특히 일상생활장애(t=3.84, p<.001), 가상세계지향(t=2.59, p=.010), 금단(t=3.54, p<.001), 내성(t=4.38, p<.001)의 하위요인 모두에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3>.

3.4 성적 별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의 차이

성적 하위 학생이 상위 학생보다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95, p<.001). 특히 하위 학생들은 오락/여가(F=21.96, p<.001), 과시/유행(F=6.60, p=.002)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상위 학생들이 자기 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20.10, p<.001) 즉각적 만족(F=20.73, p<.011)과 장기적 만족(F=5.75, p=.004) 모두 유의하였다. 중독은 하위 성적 학생이 일상생활장애(F=139.44, p<.001), 가상세계지향(F=89.83, p<.001), 금단(F=149.04, p<.001)과 내성(F= 144.96, p<.001)에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중독 전체적으로도 성적 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580.77, p<.001)<표 4>.

(Table 2) Difference in use motivations, self-control, and addiction by grade

Variables	M(SD)	Sub-dimensions	Grade(n)				Sub-dimensions	Grade(n)				
			First (128)	Second (107)	Third (67)	Fourth0 (40)		First (128)	Second (107)	Third (67)	Fourth0 (40)	
use motivations	M(SD)	information seeking	3.20±.70	3.45±.78	3.80±.78	3.55±.74	functionality	3.82±.61	4.00±.55	3.88±.68	4.00±.46	
	F(p)		9.01(p<.001)						2.12(.097)			
	M(SD)	entertainment /leisure	3.75±.75	3.89±.68	3.78±.68	3.77±.50	flaunt/trend	2.43±.80	2.16±.75	2.48±.85	2.23±.75	
	F(p)		.81(.490)						2.62(.050)			
	M(SD)	service convergence	3.92±.82	4.08±.72	4.13±.68	4.01±.80	relation	3.15±.89	3.08±.91	3.00±.91	2.83±.98	
	F(p)		1.39(.247)						1.19(.313)			
M(SD)	being immediately	3.95±.71	4.05±.57	4.16±.58	4.16±.55	total	3.45±.47	3.51±.43	3.60±.59	3.52±.47		
F(p)		2.22(.085)						1.40(.243)				
self-control	M(SD)	instant satisfaction	3.54±.51	3.64±.51	3.48±.57	3.76±.46	total	3.40±.38	3.48±.38	3.36±.37	3.59±.36	
	F(p)		3.23(.023)						4.01(.008)			
	M(SD)	long-term satisfaction	3.26±.44	3.31±.42	3.23±.46	3.42±.39						
addiction	M(SD)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2.38±.53	2.45±.59	2.35±.42	2.64±.50	tolerance	2.50±.59	2.57±.61	2.48±.62	2.71±.71	
	F(p)		2.87(.037)						1.52(.209)			
	M(SD)	virtual life orientation	1.73±.61	1.68±.58	1.74±.61	1.81±.60	total	2.27±.49	2.30±.50	2.26±.41	2.27±.53	
	F(p)		.51(.676)						1.34(.940)			
	M(SD)	withdrawal	2.15±.64	2.16±.60	2.21±.51	2.36±.70						
F(p)		1.18(.318)										

(Table 3) Difference in use motivations, self-control, and addiction by gender

Variables	M(SD)	Sub-dimensions	gender(n)		Sub-dimensions	gender(n)		
			female(304)	male(38)		female(304)	male(38)	
use motivations	M(SD)	information seeking	3.47±.80	3.13±.81	functionality	3.93±.58	3.74±.69	
	t(p)		2.46(.014)				1.87(.062)	
	M(SD)	entertainment /leisure	3.85±.69	3.43±.81	flaunt/trend	2.32±.86	2.37±.91	
	t(p)		3.43(.001)				.35(.725)	
	M(SD)	service convergence	4.07±.70	3.65±.94	relation	3.07±.94	3.00±.95	
	t(p)		3.28(.001)				.41(.683)	
M(SD)	being immediately	4.07±.59	3.84±.88	total	3.53±.46	3.32±.60		
t(p)		2.16(.032)				2.46(.014)		
self-control	M(SD)	instant satisfaction	3.58±.52	3.67±.53	total	3.43±.38	3.52±.39	
	t(p)		-.99(.322)				1.44(.150)	
	M(SD)	long-term satisfaction	3.28±.43	3.38±.45				
addiction	M(SD)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2.47±.54	2.11±.52	tolerance	2.59±.60	2.13±.62	
	t(p)		3.84(p<.001)				4.38(p<.001)	
	M(SD)	virtual life orientation	1.75±.59	1.49±.58	total	2.31±.47	1.97±.47	
	t(p)		2.59(.010)				4.28(p<.001)	
	M(SD)	withdrawal	2.23±.62	1.86±.52				
t(p)		3.54(p<.001)						

3.5 스마트폰 주요 사용목적 별 중독 정도

스마트폰 주요 사용목적은 게임, MP3, 문자와 인터넷 검색이라고 한 군에서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2.61, p<.018). 특히 통화보다 문자를 많이 쓰는 학생

들의 중독 점수가 높게 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49, p=.001)<표 5>.

〈Table 4〉 Difference in use motivations, self-control, and addiction by record

Variables	M(SD)	Sub-dimensions	record(n)			Sub-dimensions	record(n)			
			good(116)	fair(114)	poor(112)		good(116)	fair(114)	poor(112)	
use motivations	M(SD)	information	3.34±.86	3.47±.72	3.51±.82	functionality	3.81±.61	3.92±.57	4.00±.58	
	F(p)	seeking		1.49(.228)				2.90(.056)		
	M(SD)	entertainment	3.50±.72	3.86±.61	4.08±.67	flaunt/trend	2.11±.89	2.38±.77	2.50±.88	
	F(p)	/leisure		21.96(p<.001)				6.60(.002)		
	M(SD)	service	3.92±.82	4.06±.68	4.11±.77	relation	2.91±.98	3.11±.96	3.18±.95	
	F(p)	convergence		1.90(.151)				2.21(.111)		
	M(SD)	being	4.00±.69	4.09±.58	4.07±.62	total	3.37±.51	3.55±.45	3.62±.45	
	F(p)	immediately		.83(.437)				8.95(p<.001)		
	self-control	M(SD)	instant	3.80±.48	3.56±.47	3.38±.53	total	3.60±.36	3.41±.37	3.39±.35
		F(p)	satisfaction		20.73(p<.001)				20.10(p<.001)	
M(SD)		long-term	3.93±.44	3.25±.42	3.21±.41					
F(p)		satisfaction		5.75(.004)						
addiction	M(SD)	disturbance of	1.98±.48	2.47±.33	2.87±.37	tolerance	2.03±.57	2.58±.35	3.06±.40	
	F(p)	adaptive function		139.44(p<.001)				144.96(p<.001)		
	M(SD)	virtual life	1.32±.43	1.71±.46	2.18±.56	total	1.77±.26	2.31±.11	2.81±.27	
	F(p)	orientation		89.83(p<.001)				580.71(p<.001)		
	M(SD)	withdrawal	1.68±.53	2.21±.37	2.73±.42					
	F(p)			149.04(p<.001)						

〈Table 5〉 Difference in addiction by main purpose of use

Variables	Sub-dimensions	total(342,%)	M(SD)	t(F(p))	
Main purpose of use	call	95(27.8)	31.72(6.76)	2.61 (.018)	
	letter	129(37.7)	35.05(7.49)		
	game	6(1.8)	35.50(6.80)		
	camera	8(2.3)	32.83(9.98)		
	internet	78(22.8)	35.05(6.64)		
	MP3	23(6.7)	35.44(7.24)		
	others	3(0.9)	35.85(6.76)		
	call	95(27.8)	31.72(6.76)		-3.48
	letter	129(37.7)	35.05(7.49)		(.001)

3.6 중독 수준에 따른 이용 동기, 자기통제력

중독 수준에 따라 이용 동기의 오락(F=11.58, p<.001), 서비스(F=3.94, p=.020), 기능성(F=5.36, p=.005)의 하위요인과 전체 이용 동기(F=6.29, p=.002)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기 통제력에는 즉각적 만족(F=8.30, p<.001)의 하위요인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8.26, p<.001)<표 6>.

3.7 일반적 특성과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학년은 이용 동기의 정보획득(r=.23, p<.001), 즉시성

〈Table 6〉 Difference in use motivations, self-control by addiction

Variables	M(SD)	Sub-dimensions	Degree of addiction			Sub-dimensions	Degree of addiction			
			normal user group(235)	risk group(44)	high-risk group(63)		normal user group(235)	risk group(44)	high-risk group(63)	
use motivations	M(SD)	information	3.41±.82	3.46±.82	3.53±.78	functionality	3.84±.59	4.01±.50	4.13±.62	
	F(p)	seeking		.63(.531)				5.36(.005)		
	M(SD)	entertainment	3.68±.72	4.01±.59	4.14±.63	flaunt/trend	2.25±.86	2.51±.79	2.47±.90	
	F(p)	/leisure		11.58(p<.001)				2.84(.060)		
	M(SD)	service	3.95±.76	4.15±.66	4.22±.80	relation	3.05±.98	3.05±.99	3.13±.99	
	F(p)	convergence		3.94(.020)				1.6(.855)		
	M(SD)	being	4.01±.64	4.19±.57	4.09±.63	total	3.45±.49	3.62±.42	3.67±.49	
	F(p)	immediately		1.74(.177)				6.29(.002)		
	self-control	M(SD)	instant	3.66±.51	3.43±.54	3.41±.49	total	3.49±.38	3.32±.32	3.31±.37
		F(p)	satisfaction		8.30(p<.001)				8.26(p<.001)	
M(SD)		long-term	3.32±.44	3.21±.38	3.21±.41					
F(p)		satisfaction		2.52(.082)						

<Table 7> Correlations among the use motivations, self-control, and addiction

	degre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a. self control	.09 (.108)	1																	
b. instant satisfaction	.07 (.201)	.84 (<.001)	1																
c. longterm satisfaction	.07 (.193)	.76 (<.001)	.28 (<.001)	1															
d. use motivations	.09 (.110)	-.07 (.218)	-.13 (.020)	.03 (.543)	1														
e. information seeking	.23 (<.001)	-.01 (.789)	-.04 (.514)	.02 (.754)	.58 (<.001)	1													
f. entertainment	.01 (.836)	-.12 (.024)	-.18 (.001)	.00 (.998)	.62 (<.001)	.21 (<.001)	1												
g. service being immediately	.07 (.187)	.02 (.718)	-.01 (.857)	.05 (.376)	.66 (<.001)	.28 (<.001)	.48 (<.001)	1											
h. functionality	.13 (.137)	.10 (.278)	.06 (.470)	.10 (.235)	.70 (<.001)	.51 (<.001)	.34 (<.001)	.58 (<.001)	1										
i. flaunt/trend	.01 (.673)	-.12 (.005)	-.18 (<.001)	.00 (.866)	.62 (<.001)	.21 (.001)	.48 (<.001)	.48 (<.001)	.58 (<.001)	1									
j. relation	-.10 (.066)	-.01 (.836)	-.10 (.036)	.11 (.048)	.56 (<.001)	.14 (<.001)	.23 (<.001)	.23 (<.001)	.16 (.003)	.33 (<.001)	.52 (<.001)	1							
k. addiction	-.01 (.985)	-.33 (<.001)	-.36 (<.001)	-.15 (.007)	.25 (<.001)	.10 (.078)	.34 (<.001)	.12 (.025)	.06 (.284)	.14 (.010)	.22 (<.001)	.16 (.003)	1						
l. disturbance	.09 (.094)	-.28 (<.001)	-.29 (<.001)	-.15 (.006)	.21 (<.001)	.09 (.093)	.29 (<.001)	.13 (.015)	.07 (.173)	.17 (.002)	.15 (.007)	.09 (.111)	.75 (<.001)	1					
m. virtual life orient	.04 (.496)	-.32 (<.001)	-.32 (<.001)	-.18 (.001)	.22 (<.001)	.06 (.263)	.29 (<.001)	.08 (.122)	-.01 (.889)	.14 (.012)	.27 (<.001)	.16 (.003)	.64 (<.001)	.43 (<.001)	1				
n. withdrawal	.09 (.109)	-.28 (<.001)	-.31 (<.001)	-.12 (.023)	.23 (<.001)	.12 (.022)	.26 (<.001)	.10 (.054)	.06 (.276)	.11 (.044)	.22 (<.001)	.18 (.001)	.76 (<.001)	.54 (<.001)	.61 (<.001)	1			
o. tolerance	.07 (.193)	-.20 (<.001)	-.25 (<.001)	-.06 (.300)	.31 (<.001)	.15 (.005)	.38 (<.001)	.21 (<.001)	.16 (.002)	.22 (<.001)	.20 (<.001)	.15 (.005)	.79 (<.001)	.68 (<.001)	.47 (<.001)	.65 (<.001)	1		
p. record	.02 (.777)	-.32 (<.001)	-.33 (<.001)	-.17 (.001)	.22 (<.001)	-.09 (.098)	-.34 (<.001)	-.10 (.061)	-.05 (.336)	-.13 (.017)	-.19 (<.001)	-.11 (.044)	-.38 (<.001)	-.67 (<.001)	-.59 (<.001)	-.68 (<.001)	-.68 (<.001)	1	

($r=.13, p=.014$)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은 이용 동기의 오락($r= -.12, p=.024$), 과시($r=-.15, p=.005$), 그리고 중독의 일상생활장애($r=-.28, p<.001$), 가상세계지향($r=-.32, p<.001$), 금단($r=-.28, p<.001$), 내성($r=-.20, p<.001$)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적과 자기통제는 정적 관계($r=.32, p<.001$)를 나타내었다. 이용 동기는 중독의 모든 하위요인, 일상생활장애($r=.21, p<.001$), 가상세계지향($r=.22, p<.001$), 금단($r=.23, p<.001$), 내성($r=.3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성적과는 부적 관계($r=-.22, p<.001$)를 나타내었다. 성적은 중독($r=-.88, p<.001$)과 하위요인 일상생활장애($r=-.67, p<.001$), 가상세계지향($r=-.59, p<.001$), 금단($r=-.68, p<.001$), 내성($r=-.68, p<.001$) 모두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7>.

3.8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1은 일반적 특성, 자기 통제력과 중독의 하위요인을, 모델 2는 이용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중독을 종속변수로 한

각각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장 분석은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립성과 정규분포성, 등분산성 등으로 진단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0.35-0.96의 범위로 0.1보다 훨씬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3-2.85의 범위로 기준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에서 1.449와 1.960으로 각각 나타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독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중독 영향의 주요 요인은 성적($\beta=-.44$), 내성($\beta=.23$), 금단($\beta=.17$), 일상생활장애($\beta=.17$), 가상세계지향($\beta=.10$)과 학년($\beta=-.04$)으로 중독의 88.2%를 설명하였다. 모델 2에서는 이용 동기 하위요인 중 오락/여가($\beta=.10$), 과시/유행($\beta=.10$)이 중독의 1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4. 논의

최근 들어 휴대전화의 사용이 정보교류와 상호연결

강화를 위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보다는 인터넷 사용과 오락, 사행성 중심의 게임 등 오락 매체적 특성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

(Table 8) Determinants of addiction in general characteristics, self-control, sub-dimensions, use motivations

Variables		B	β	t(p)
(constant)		24.08		15.67(p<.001)
Model 1	record	-3.87	-.44	-13.89(p<.001)
	tolerance	2.65	.23	7.77(p<.001)
	withdrawal	1.98	.17	5.87(p<.001)
	disturbance	2.26	.17	6.15(p<.001)
	adaptive func.			
	virtual life orientation	1.18	.10	3.98(p<.001)
grade		-.32	-.04	-2.33(p=.021)
Adj R ² = .882		F(p) = 425.30(p<.001)		
(constant)		19.68		9.60(p<.001)
Model 2	use			
	entertainment	3.05	.30	5.74(p<.001)
	flaunt/trend	1.23	.15	2.81(p=.005)
Adj R ² = .129		F(p) = 26.28(p<.001)		

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28]. 하지만 유용성과 장점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의 병적인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 스마트폰 중독의 관

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은 향상시키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를 스마트폰 중독 정도로 구분했을 때 일반 사용자군 69.7%,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12.9%, 고위험 사용자군 18.4%로 나타났다. 같은 중독 척도로 20-4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남윤수(2013)[29]의 연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39.8%로 나타나 본 연구의 고위험 사용자군 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회인보다는 대학생의 신분이 할 일(수업, 시험, 과제, 취업준비 등)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고위험 중독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는 어디서든 연락 가능, 정보공유, 친구와 친밀감 향상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 인식으로는 사용료 부담, 학업 문

제, 대화시간 감소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김은경(2006)[16]의 연구도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비슷하였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불안감에 대해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이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생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불안감을 느끼기 보다는 가족과의 대화감소를 더 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나타낸 결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 정보획득의 하위요인에 3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이유는 학과 특성 상 3학년의 과제가 가장 많고 임상실습을 하는데 있어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에 스마트폰의 즉시성과 신속성, 수월성 때문에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 통제력의 즉각적 만족 요인에 4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전체적으로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기 통제력은 외부의 중재에 의해 시작되고 학습을 통해 발달 가능하다는 Walker (1979)[30]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졸업을 앞 둔 최고 학년으로서 그만큼 자기통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4학년이 특히 일상생활장애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같은 정도의 중독 상태일지라도 4학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중독의 연구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동기(특히 정보획득, 오락/여가, 서비스, 즉시성)가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독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 모두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하는 이유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13]. 남학생은 오락성과 과시, 기술적 측면에 관심을 나타내지만 여학생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대[28]. 스마트폰 중독에 여성 이용자들의 중독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31, 13, 28]와 남성 이용자들의 중독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 논문[8, 32] 등이 있는데 이는 추후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동등한 대상자를 통해 성별을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성적 하위학생은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중 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중독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 모두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자기 통제에 대해서는 즉각적 만족, 장기적 만족 둘 다에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성적 상위 학생들은 자기 통제 중, 특히 즉각적 만족 측면에서 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당장 해야 할 학습과 과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과다함을 인식하면서도 도저히 사용을 통제할 수가 없어 성적저하 및 학업문제, 심리적 부적응, 생활 장애, 건강악화 등[33]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학습향상이나 정보획득, 자료 수집을 위한 바람직한 측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기나 비 건설적인 측면으로 사용하고 그러다보니 점차 습관적 또는 내성에 의한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수업집중력 감소, 학업저하[9, 10] 등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스마트폰 주요 사용목적이 게임, MP3, 문자와 인터넷 검색이라고 한 군에서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도 스마트폰 이용이 건전하지 않고 시간 낭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통화보다 문자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중독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한승수 등[34], 윤승욱 등[3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찬호[36]는 문자메시지의 선호 이유를 경제성, 편리성, 보안성, 시각성, 창조성, 친밀성, 긴장감이라고 하였다. 여러 장점을 통해 통화보다는 문자를 많이 쓰게 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장점이 결국은 중독으로 이끄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고위험 사용자군이 오락/여가, 서비스, 기능성의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자기 통제력, 특히 즉각적 만족에 대해서는 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종훈[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Young[20]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현실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기다리거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를 못하므로 가상공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은영[37]은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특성을 개인 중심성, 즉시성, 직접성으로 보았고 이중, 즉시성은 기다리

는 시간이나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 없이 원할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통한 즉시적 반응을 기다리고 자신 또한 전달할 메시지가 생각나면 바로 의사소통의 욕구를 처리하고 싶어 욕구를 지연시키지 못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즉시적 사용의 장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 덧붙이자면 즉각적 만족을 증시하는 사람은 지연되는 것을 참고 더 큰 강화를 선택하는 일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며 지금 당장의 무의미한 오락/여가, 게임의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낮은 통제력은 중독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38, 39, 16]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 통제력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기 통제력은 이용 동기의 오락/여가, 과시/유행과 중독의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신영미[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용 동기는 중독의 모든 하위요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13, 40]. 성적은 자기통제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이용 동기와 중독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중독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과 그 하위요인의 영향력 분석(모델 1)을 위한 단계적 회귀방식에서 그중 성적, 중독 하위요인 중 내성,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과 학년의 순서로 중독의 8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독에 성적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중독 척도를 이용한 이선종(2013) [41]의 연구에서는 하위변수 중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 가상세계지향의 순서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일개 학과 대상자로만 구성되었고 이선종의 연구에서는 5개 지역의 11개 이질적 학과의 대학생들로 연구가 이루어진 차이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상자의 특성(성격, 동기, 태도 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중 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이 중독의 12.9%를 설명(모델 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종(2013)[41]의 연구에서도 오락/여가를 목적으로 스

마르폰을 사용할 때 중독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과시/유행의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옥화[4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오락/휴식의 동기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영미[13]의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 중, 오락/여가의 동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내성과 생활불편/부적응의 과다사용(중독)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목적 없이 심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거나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중독의 내성을 점차 높여가고 일상생활장애를 초래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여러 연구들에서 오락/여가, 과시/유행의 동기들이 중독의 경향을 높여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된바, 바람직하고 건전한 이용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과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디어 중독은 특정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나 여가 시간 등을 보이며 긍정적인 수준의 충족을 경험하다가 점차 특정 수준을 넘게 되면서 병적인 중독에 이를 수 있다[40]. 그러므로 미디어 이용의 바람직한 수준에 있을 때 올바른 이용 동기와 건강한 자기 통제력을 격려하고 훈련하여 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 휴대폰은 타인과의 통신 문제 해결 외에도 게임, 인터넷 검색, 홈 네트워크, 동영상 촬영, 카메라, 시간관리, 메모, DMB 등 다양한 부가기능[40]이 있어 얼마든지 유용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중독과정에서 강박적으로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자기 통제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은 향상시키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의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 모두에 높은 점수로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 하위학생은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중 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중독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 모두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자기 통제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통화보다 문자를 많이 쓰는 학생들의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고위험 사용자군이 오락/여가, 서비스, 기능성의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기 통제력(특히 즉각적 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자기통제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용 동기와 중독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중독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이용 동기, 자기 통제력, 중독과 그 하위요인의 영향력 분석(모델 1)에서 성적과 중독 하위요인 중 내성,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과 학년의 순서로 중독의 88.2%를 설명하였고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중 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이 중독의 12.9%를 설명(모델 2)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스마트폰 이용 동기(특히 오락/여가와 과시/유행)는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자기 통제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 통제력은 성적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용을 유도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심심풀이나 게임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부터 중독에 이르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추후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 중독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제언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REFERENCES

- [1]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http://www>.

- kcc.go.kr/user.do?mode=view&page=A02060400&dc=K02060400&boardId=1030&cp=1&boardSeq=36008, 2013.
- [2] Lee, M. S. smart phone Addiction and Related Social Conc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 2010.
- [3] Kwon, K. D., Lim, T. Y., Choi, W. S., Park, S. B., & Oh, D. H. The Future of Smartphone. Knowledge Hub for Creative Solutions, vol. 741, 1-22, 2010.
- [4]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The Status of Use and Sociological Meaning of Mobile phone in Youth. Seoul, 2001.
- [5] Kong, Y. I. Undertone and Implication of Smart phon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2(4), 2010.
- [6] Jung, J. Y., Kim, D. H. A study on mobile phone addic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 27(1), 140-153, 2005.
- [7] Diana James, Judy Drenan. Exploring addictive consumption of Mobile Phone Technology. ANZMAC 2005 Conference: Electronic Marketing, 87-96. 2005.
- [8] Park, J. S. The Variables in Influencing on Smart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 2011.
- [9] Jeong, J. Y. A study on mobile phone addic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Public health, Hallyum Univ., 2004.
- [10] Bae, J. Y. Juvenile Dependency on the New Media and Effects of Relevant variables on the Learning Attitudes-focusing on the Actual Use of Smart Phon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Yeungnam Univ., 2012.
- [11] Park, W. K. The Mobile Phone Addi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47(2), 250-281, 2003.
- [12] Jang, S. H., Park, Y. J.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Forum. 8(3), 25-41, 2009.
- [13] Sin, Y. M.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nd Utilization Degree and Smartphone Over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 2011.
- [14] Yang, J. H. Study on the Effect of Loneliness and Self-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Addictive Inclination to Mobile Phon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shin Univ, 2011.
- [15] Hong, J.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the Self-Control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Major in Counseling Psycho., Kwandong Univ., 2009.
- [16] Kim, E. K. The Difference of Self control and Self regulation of Learn Capacity according to Use of mobile pho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 2006.
- [17]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tudy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ion Seoul, 2008.
- [18] Lee, I. H. Motivations for Mobile Phone Uses Among Collegiate Undergraduate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5(3), 261-293, 2001.
- [19] Yang, I. Y., Lee, S. Y. Exploring smartphone early adopters categories on the basis of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1), 2011.
- [20]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ranslated by Kim, H. S.(2000). Internet Addiction. Seoul: House of Nanum, 2000.
- [21] Kim, H. S.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 1998.
- [22] Na, E. Y. Teens' Usage of Mobile phon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Mobile Phone, and

- efficacy for Communication: surve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02 to 2004. *KJCS*, 49(6), 2005.
- [23] Choi, H. S., Lee, H. K., Ha, J. C.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campus life and personal relations—focusing on K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5), 1005-1015, 2012.
- [24] Kim, J. H.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 2012.
- [25] Kim, M. K. Investigation on Risk Factors of Pathological Gambling: Focused on Personality and Motiv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ug University, 2005.
- [26] Nam, H. M.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 1999.
- [27]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Seoul, 2011.
- [28] Sung, Y. S. Mobile Phone Dependency, Motivations and Effects of Mobile Phone Usage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4), 181-197, 2008.
- [29] Nam, Y. S. A Study on Use Motivation and Addiction to Smartphone—Focused on Difference between Gratification Sought and Gratification Obtained according to degree of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 2013.
- [30] Walker, D. Creating the 'community' of higher education. *the New universities quarterly*, 33(2), 220-231, 1979.
- [31] Park, Y. M. A Study on Adults' Smart 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angji Univ., 2011.
- [32] Kim, B. Y. The Correlations Among Highschool students' Internet Gam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the Lack of Sleep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Counseling education, Sahmyook Univ., 2012.
- [33] Kim, B. S. An Exploratory Study of Possibility of Dependency in Digital device. 「KADO issue report」 3(6), 1-36, 2006.
- [34] Han, S. S., Oh, K. S. A study on Cellular Phone Addiction Symptom Depen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ypes and Using Inclina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4), 375-405, 2006.
- [35] Yun, S. U. The Study on the Expectancy-Value of Mobile Internet Users.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12(1), 22-56, 2004.
- [36] Kim, C. H. <Tell the phone: Anthropology of mobile Communications>. Wings of Knowledge, 2008.
- [37] Na, E. Y. Media attributes of Mobile Communication to Affecting the Adoption of Mobile phone. *KJCS*, 45(4), 189-228, 2001.
- [38] Ryu, O. S.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Stress Coping Method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gsang Univ., 2007.
- [39] Jang, E. S. 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Impulsion Using of Mobile Phone in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 2006.
- [40] Woo, H. J. Media Audiences' Self-Stability, Dispositional Media Use Motives, Flow, and Addiction: A Comparative Study on Online Game, Internet, and Mobile Phone Addiction.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1(4), 101-140, 2007.
- [41] Lee, S. J. Exploration and Verification of risk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focused on Personality and Use Motiv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sang National Univ, 2013.

- [42] Park, O. H.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Motives, Self-Control, and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 2009.

조 미경(Cho, Meekyung)



- 198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행정, 생명윤리, 청소년
- E-Mail : mkcho@hit.ac.kr